

우리나라의 FDI 세계치과의사총회(FDI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유치의 의미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담당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 1국 국제담당 대리²⁾
김 여 갑^{*)}, 김 태 훈²⁾

ABSTRACT

The Meaning of Hosting 2013 FDI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in Seoul

Professor,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Vice-President of Korean Dental Association¹⁾
Assistant Manager, Foreign Affairs of Korean Dental Association²⁾

Yeo Gab Kim, DDS, MSD, PhD¹⁾, Tae-Hoon Kim²⁾

FDI World Dental Federation is organization representing more than one million dentists worldwide with its more than 100 years of long history. Now FDI headquarter is located in Geneve, Switzerland and serves for developing health policy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speaking as a unified voice for dentistry in international advocacy and supporting member association in oral health promotion activities worldwide. Korean Dental Association has been a member of FDI since 1959 and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FDI's worldwide activities. Past Dr. Heung-Ryul Yoon was a president of FDI from 2003 for 2 years and we also have an experience in 1997 of hosting FDI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successively in Seoul. The image of a country reflects the country's culture as well as affects to its economic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it decides the national brand toward the world. Currently, Korean people realized that and put their efforts for promoting diverse aspects of Korea to the world such as multimedia culture called Han-Ryu, electric industry, automotive industry, sports represented by soccer. We have advanced technique and skill in various fields and now it's time to show ourself better to the world. It's same to the dentistry. It's true that Korean dentistry is top-class in the world and the dental industry is prosperous and also has best technique in the world. I think and strongly hope that the 2013 FDI Seoul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would be best opportunity for Korean dentistry and dental industry to promote ourselves and make a big step to the world. Not only for the dentistry, it will also be very good chance to all the Korean people to improve Korean national brand. I believe that we can accomplish if we, all dental societies, stand together and join our effort to use this good chance the best. I know we can make it.

Keywords : FDI World Dental Federation, National Brand, Advanced Dentistry, Promote, Big Step to the World, 2013 FDI Seoul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I. 서론

FDI 세계치과의사연맹(FDI World Dental Federation, 이하 FDI)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치과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각국 치과의사협회의 모임체이다. 현재 134개국 191개 회원 협회를 통한 100만 치과의를 대표하는 현존하는 세계의 전문가 단체 중에 그 역사성과 대표성을 자랑하는 단체 중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세계 구강 보건 증진을 위해 치과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 왔다. 1900년에 창립하여 11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United Nations(UN) 및 World Health Organization(WHO)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자문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제보건영역에서 역할을 증진시켜가고 있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로 인식되고 있고, 1997년 우리나라에서 FDI 세계치과의

사총회(FDI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이하 FDI 총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의 치과의사 사이에서는 아직 그 이름조차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에 우리나라가 2013 FDI 총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룬 지금, FDI의 전반적인 개요와 역할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제보건의료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국내 치과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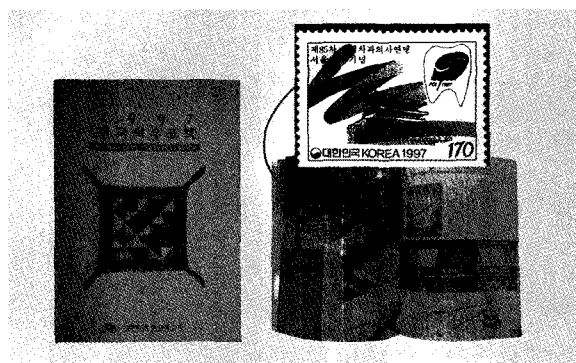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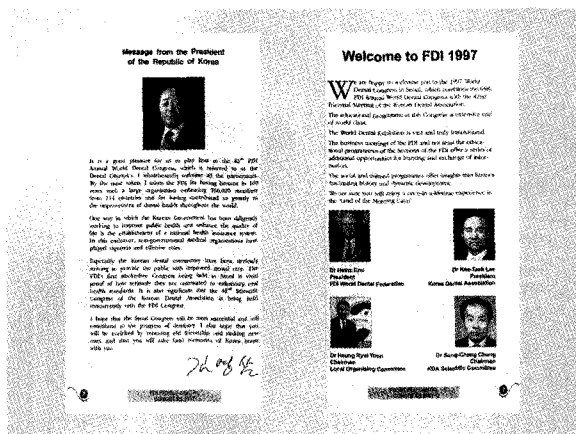
II. 본론

1. FDI의 역사

FDI는 1900년도에 파리에서 프랑스를 주축으로 스페인, 영국, 스웨덴, 미국의 치과계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거쳐 처음 결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FDI(Fédération Dentaire Internationale)라는 프랑스어로 초기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 영문 명칭으로 개정한 지금도 FDI World Dental Feder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FDI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 후 FDI는 네덜란드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합류를 하고, 프랑스의 Dr. Charles Godon을 초기회장으로 결정하며 바로 그 해인 1900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제1차 세계치과의사총회를 개최하고 그 맥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 FDI의 비전 및 미션

FDI의 비전은 'Leading the World to Optimal Oral Health' 즉, 세계인의 구강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이끌어가자는 것이다. 이는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기본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세계보건기구 및 각국 보건정책에 비중을 크게 반영토록 유도하고, 보수교육 및 접근성 확대 등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기여를 통하여 세계 구강 보건 환경을 증진시키고 세계 치과계가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 마련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기위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한 미션이 있다. FDI의 미션은 크게 치과계를 총괄하여 대표하는 역할과, 세계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이끄는 역할, 회원국 치과의사 협회가 그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각국의 기초학 및 임상의학술적인 정보교류 창구로서의 역할 등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3. FDI의 구조

FDI의 회원은 Regular member, Associate member, Affiliate member, 그 리 고 Supporting member로 구성 되어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4개국 이상에서 144개의 national dental association이 regular member가 되며, Taipei Dental Association 등 7개 단체가 associate member로 되어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IAD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IAOMS) 및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등을 포함한 22개의 affiliate member가 있었으며,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Medicine, Japan Dental Trade Association 및 Young Dental Worldwide 등 17개 supporting member로 구성 되어있다.

FDI는 각국 치과의사협회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General Assembly)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Council)라는 집행기구를 통해 운영된다. 이사회는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재무이사 1명과 10명의 이사로 이루어지며 사무총장과 대의원총회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

을 가진 임원으로써 이사회에 참석한다.

대의원 총회는 입법기구로써 이사회 임원은 대의원으로써의 표결권이 없으며, FDI의 정책선언서 채택, 각종 선거 등의 중요사안들을 다룬다. 이사회는 집행기구로써 FDI의 활동과 관련된 의결과 선거의 일부를 진행하며 FDI 총회 개최지 또한 이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의원은 각국의 실질적인 치과의사 숫자에 의하여 비례하여 결정되는데, 놀라운 것은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브라질이 22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17,955명으로 두 번째이었으며, 5만 명이 넘는 나라가 53,298명인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과 인도 등 3국이 있었고, 전술한 나라를 제외하고 2만 명이 넘는 나라도 21,788 명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국 뿐 이었다. 치과의사 숫자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홍콩은 1,630명이다. 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화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2009년 기준 선거로 선출되는 부분에서 회장 Brazil, 차기회장 Portugal, 재무이사 Hong Kong, 외에 Pakistan, Benin, Germany, France, Japan, USA, Malaysia, Brazil, Czech Republic, Nigeria 등이 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나라도 있을 것이다.

위에 설명한 집행기구 외에 FDI는 각 미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5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의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세계 치과계의 범주 안에 5개의 전문 분야를 구분한 것이고, 분과는 특수 직무 성격별로 공직치과의사, 군진치과의사, 세계여자 치과의사로 나누어 직군별 공통 관심사를 교류하고 전체적인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분한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미, 북미의 5개 지역 기구를 두고 해당 지역에 소속되는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른 이

점 및 공통 요인 등을 활용하여 내부적인 교류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FDI Section(분과)

- Section of Public Health
- Section of Defence Forces Dental Services
- Section of Women Dentists Worldwide

FDI Standing Committee(상임위원회)

- Communications & Member Support committee
- Dental Practice Committee
- Education Committee
- Science Committee
- World Dental Development & Health Promotion Committee

우리나라에서는 문준식 원장이 Communication and Member Support Committee에 작년 싱가포르 총회에서 당선되어 위원으로 봉사하고,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국 국제이사(경희대 교수)가 Education Committee에 당선되었다. 우리나라와 2013년 FDI 총회 유치를 위하여 경쟁하였던 홍콩이 끝까지 막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홍콩의 Tin Chun Wong이 4명 밖에 없는 Executive Committee의 위원이며, FDI의 재무이사로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도 회장은 물론 12명의 voting council member로 더 들어가야 하고, 그럼으로써 FDI 운영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살바도르 총회에서 얻은 큰 수확은 김경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세계여자치과의사회의 5인의 이사 중의 한 명이 된 것이다. 개인적인 뛰어난 친화력을 가지고 펼친 국제적인 활동과 함께 우리나라의 여자치과의사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FDI의 주요 사업

세계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FDI의 주요사업은 1) Global Health Promotion, 2) Advocacy and Policy, 3) Continuing Education, 4)

Development Projects라는 4개의 큰 분야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1) Global Health Promotion

Global Health Promotion, 즉 세계 보건 증진이라는 사업 분야에서는 충치의 근절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세계구강건강 현황 자료집 발간, 세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추진, 불소를 활용한 구강건강 증진방안 홍보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Dental Ethics, 즉 치과윤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2007년 FDI Dental Ethics Manual을 출간한 이후 매년 보완하고 있으며, 치의학 교육내용에 한 부분으로 전문가로서의 윤리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윤리적 가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Advocacy and Policy

정책선언서를 발표하고 홍보하며 WHO와 UN의 각종 보건 관련 및 금연 관련 회의에서 치과계를 대표하여 참석하며 치과계의 입장이 세계 보건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 및 옹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중에 구강건강과 전신건강과의 관계, 저작효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과진료실에서 감염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치아의 과민증, 노령 환자의 무치악과 전신건강에 관한 문제 및 학회의 명칭, 전문직의 명칭 및 명예직의 명칭 등의 사용이 2009년 싱가포르 총회 때부터 새로운 정책적인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치의학의 전문적인 문제 외에도 명칭에 관한 것이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3) Continuing Education

치과전문인으로써 보수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진료 수준의 유지 및 최신 치의학 지식으로 업데이트시킴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며 전체 치과계를 정체되지 않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FDI는

국제적인 안목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자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시에 각 국가별로 우수한 연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FDI와 연계된 연자를 파견하여 보수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보수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다 발전되고 표준화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 전반적인 치의학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Development Projects

마지막 4번째 분야는 개발 프로그램이다. 저개발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구강진료를 지원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L. L. L.(Live Learn Laugh)프로그램과 World Dental Development Fund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세계 구강 보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각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5개의 상임위원회로 각 위원회 별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FDI 세계치과의사총회(FDI 총회)

FDI 총회는 세계 보건 관련 총회 중에서 외국인 참가자를 10,000명 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총회로 세계 컨벤션 이벤트 중에서도 단일 기구 주최 회의로는 그 규모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고 있다.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FDI 총회는 FDI가 결성된 1900년 런던총회를 1회로 시작하여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여건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최되어 2012년에 그 100회를 맞이하게 되고, 이번에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2013년 FDI 총회가 바로 101회 총회가 된다. FDI 총회는 크게 학술프로그램과 기자재전시회 그리고 각 종 회의로 구성된다. 국내 학술대회와 비슷한 개념으로 진행되는 학술프로그램과 기자재전시회는 4일 동안 진행되고, 공식 일정이 개최되기 4~5일 전부터 FDI의 임원과 각국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총회, 이사회, 오픈포럼 및 각 상임위원회가 총회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그 일정들

을 진행하여 국제 치과계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적 입장, FDI 활동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을 하여 반영토록 한다. 학술대회의 경우 각각의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초록집을 만들 때 초록과 함께 learning objectives를 꼭 넣었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2009년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119개국에서 약 7000명 정도가 참가하였으며, World Dental Exhibition에는 30개국에서 234개 회사(2008년에는 300개 회사)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90%는 외국회사였다고 보고하였다.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각국의 대의원은 220명이 참석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의원 총회에서 3개의 새로운 정책과 6개의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여 채택하였다.

4일간의 학술대회는 “Advancing Dentistry at the Crossroads of the World”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64개의 주제를 가지고 100명 이상의 발표가 있었으며, 포스터 발표가 90개이었으며, 43개의 자유연제 발표가 있었다. 포스터 발표 중 6개의 수상자(FDI/Unilever Poster Award)를 선출하였으며, 재미있는 것은 총회를 하는 동안 사진을 촬영하여 전시한 후 수상자(FDI & Wrigley Photographic Award)를 선정하여 2010년 살바도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행권을 수여하였다.

III. 결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국을 대표하여 지난 1959년부터 FDI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 치과계와의 교류를 진행해 오면서 한국의 발전된 치과계를 알리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지난 199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FDI 세계치과의사총회를 서울에 유치하여 한국의 발전된 사회상과 치과계를 모두 홍보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역임한 고 윤홍렬 박사가 한국인 최초로 2003년부터 2년간 세계 치과계의 수장인 FDI회장을 역임하여 세계 속의 한국 치과계의 위

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적인 국가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인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 국가의 이미지가 바로 국가 브랜드가 된다. 이것은 국민성 및 국가의 발전된 모습을 바탕으로 그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수반될 때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 반도체, IT 산업 등의 산업계 뿐 만아니라 의료계 일각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된 경제·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치의학 부분의 세계적인 수준과 교육, 산업적인 제반시설 역시 국제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2013년도의 세계치과의사총회 유치는 16년 만에 다시금 세계의 치과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높은 수준의 한국 치과계 및 사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한국 및 한국 치과의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치과의사 및 치과산업계의 해외 진출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갖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힘겹게 성취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치과인은 한국과 한국 치과계의 이미지를 세계 최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치과계가 노력하여 우리 치과계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FDI 세계치과의사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우리 모두 가슴을 조이며 뛰어다닐 때 FDI 총회 유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사실 개원가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FDI 총회 유치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 사실 그렇다. 솔직히 개원가는 언제나 어렵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만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언제까지 어려움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바로 지난 9월 26일 FIFA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동메달, 3위한테 이어서 17세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여자대표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는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여자선수들이 바로 우리가 돌풍을 일으키며 4위를 차지했던 2002년 한일월드컵을 보며 꿈을 키웠던 월드컵세대라는 것이다.

마침 이번에 브라질 살바도르의 FDI 총회 참가를 기회로 남미 몇 나라를 볼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교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북한과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 되었다고 한다. 남미의 여러 나라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북한과 교류가 많았는데 한일월드컵 후 우리나라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우리 교민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너무 우호적이라고 하였다. 꼭 월드컵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칠레와는 이미 FTA를 맺었고 페루와도 곧 맺을 예정이라고 하고, 이미 LG와 삼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현대자동차가 소개되고 있지만 브라질과도 여러 가지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우리 치과계도 2013년 FDI 세계치과의사총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를 국내, 외에 부각시키며, 한 발 더 크게 내딛을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컸던 행사 한 번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이해하려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치과인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뭉쳐야 할 때 뭉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필자는 안다.

참 고 문 헌

1. FDI World Dental Federation(Leading the World to Optimal Oral Health) Annual Report 2009
2. FDI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Salvador Da Bahia Brazil 2010, September 2~5.